

2024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지에스리테일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4.11.29	강서N타워	9/10	1	6	16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심재웅, 정사강, 이현규, 신영수, 서현선
 마경태, 한명삼, 김미경, 최정혜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허남준(사업지원부문장)
- 경영진 외 : 신석한(심의팀장), 오주연(부장), 남효주(매니저)
 채호석(방송사업지원팀장), 오세영(부장), 배소희(매니저)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	-	11	11	-	11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1	-	-	11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방심위 조치사항	<p>1. 방심위 이슈 사항 : 신규 배송서비스 관련 오인성 여부</p> <p>서인주 이번 안건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의견 부탁드리려 함. 배송 서비스를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함. 다른 쇼핑 플랫폼에서의 새벽 배송은 매일 오는 걸로 알고 있음. 택배도 일요일은 심. 당사에서도 일요일 배송을 할 수 있도록 내일 도착하는 서비스를 시작함. 우선 인천, 경기 일부, 서울 등 이렇게만 진행하고 있음. 생방송에서 초반과 중반 정도에 가볍게 설명하는 정도임. 전면에도 이미지로 사이드바에 나가고 있음. 방송 중 카드 결제 시 서울, 수도권 한정으로 단서 조항 나감. 모바일에서는 개인화가 되어서 가격, 할인율, 내일 도착가능한 색상이나 이런 것이 나오게 함.</p> <p>오주연 휴일 도착되는 것만 아이콘 표시됨. 안된다면 아이콘 없이 나옴. 주문 당시에 상단에 배송 예정 일자가 뜸. 주문 완료되면 주문서가 메신저로 언제 배송 예정이라고 옴.</p> <p>신영수 URL이나 QR코드를 제공하여 내일 도착이나 이런 정보를 준다면 관찮을 것 같음.</p> <p>마경태 모바일 주문하면 배송 지역이나 이렇게 누락되어있음. 다른 건 특별히 오인 소지가 없어 보임. 하지만 배송일 등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니 구체적인 배송 지역 등을 페이지를 추가하여 알리는 게 바람직해 보임.</p>	<p>새로운 배송 서비스인 '휴일에도 내일 도착' 배송은, 토요일 주문상품을 일요일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일부 상품군 및 일부 지역(서울, 인천/경기 일부)만 해당하는 서비스임. 단지, 일부만 해당되는 내일배송(휴일)을 기대하고 주문한 고객들이 배송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불만 발생할 수 있기에, 시청자 입장에서의 개선 의견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해 본 결과, 크게 무리 없어 보인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고지와 멘트로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향으로 시행 중. 이후 확인 결과, 고객 SR 및 특별한 문의사항은 발생하지 않았고, 점진적으로 배송지역 확대할 예정임</p> <p>계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시청자 불편함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p> <p>[24. 11 조치완료]</p>	10월

한명삼

배송 지역이 아닌 곳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하루 배송이 어려운 이유나 이런 설명이 더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신영수

지방으로 배송 자체가 안 되나?

오주연

휴일 배송이 안 되는 것임. 지방 배송은 다 가능함.

신영수

휴일 배송을 하는데 하루 늦고 이런 식인가?

오주연

인프라 확립이 안 되어 있어 휴일 배송은 아직임.

한명삼

평상적으로 지방 배송은 얼마나 걸리는가?

오주연

휴일 주문하면 평일부터 이틀 정도 소요됨. 제주, 산간 지역은 하루 정도 더 늦을 수 있음.

김미경

제주 이런 곳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보임. '배송이 제주, 산간지역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많이 봄.

이현규

어떤 어플에서는 어느 지역이 휴일 배송이 안 되는지를 결제하는 곳까지 들어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음. 정확히 어느 지역까지가 도착 범위인지 이런 정보가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노출되면 좋겠음. 개인화 되어 좀 더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거 같음. 이거에 대해 여쭙봤던 이유는 가격 아래 간단하고 정확하게 가능한 지역을 적으면 좋을 것 같음. 지역별로 상세하게 기재가 안 되면 좀 힘들 것 같음. 서울도 안 되는 지역이 있나?

심재웅

비슷한 의견 주신 분들도 있는데 주문 전에 미리 본인 지역을 검색해서 해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 연결은 안 되나?

오주연

모바일 어플에 로그인 되어 있다면 초반 부분에 배송예정일이 나와 있음. 예시 화면으로는 내일 배송이 되는 지역이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임.

정사강

만약 전화 주문의 경우는?

오주연

마지막 부분에 멘트가 언제 배송 예정인지 안내 예정이며, 메신저로도 안내 예정임.

김미경

신규 고객은 이런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지 가능한 부분 아닌가? 신규 고객은 착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음. 개인적으로 분명히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하고, 여기저기 안내해줘도 오인하는 소비자는 또 어딘가는 있을 것 같음. 방송이 토요일에 진행하는 것이고 주말 배송된다고 안내한다면 본인 지역이 수도권이 아닌 것을 생각 안하고 '내일 배송 된다고 주문한건데...' 하는 실망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음. 충분히 설명하더라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인하는 소비자는 분명 있을 것임. 지금 예시 맨 밑에 멘트가 한정이란 말이 써져있음. 일부 지역 제외 이런 말은 또 앞에서는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옴. 저 글씨도 크게 하고 멘트를 더 많이 해줬으면 함.

마경태

자막 몇 포인트 이상 이런 규정이 있을 텐데 이런 안내 멘트가 좀 작게 된 것 같음.

김미경

이 예시만 보면 작게 해서 일부러 안 보이게 한 거 아니냐는 의심 받을 수 있을 거 같음.

신영수

그 부분 때문에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거 같음. '서울, 수도권 일부는 한정으로' 이런 멘트가 있으면 괜찮음. 그러나 자막이 너무 작아서 실질적이지 않은 것 같음.

한명삼

이 화면이 금방 지나가는 것인가? 몇

초 동안 보이냐?

오주연

15초 정도임. 꽤 오래 동안 나오며, 호스트 설명에 따라 움직임.

심재웅

그럼 다른 일하다가 딱 봤을 때, 이런 글씨 크기로 획 지나가면 오인할 것 같음.

신영수

홈쇼핑 방송을 끝까지 보는 게 어려움. 중간중간 빠르게 지나가니 오인할 수 있을 것 같음. 또한, 수도권 일부만 한다는 것을 알고 봤는데도 개인적으로 지방에 사는 입장에서 저렇게 뜨면 오인 유발성이 없더라도 기대심리가 생길 것 같음. 라디오 일기예보에서 DJ가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라고 멘트를 하는 것을 듣고 수도권 중심으로 너무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서운함이 들었었음. 일종의 박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 법 위반과 상관없이 마케팅 차원에서 지방에 사는 소비자에게 좀 더 섬세한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 같음.

서인주

소비자들은 이런 문구를 많이 본 것 같음. 다른 플랫폼에서도 '수도권 일부 지역만 해당됩니다.' 이런 문구가 구매할 때 많이 보던 문구라 고지의 의무를 다 한다면 쇼핑을 한 번이라도 해본 소비자들에게는 이러한 표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인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음.

김미경

쇼호스트가 얘기할 때 '내일 당장 입을 옷이 없다면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 라고 하는데 방송 시간이 저녁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멘트가 좀 걸림. 만약 약속이 일요일 오후 2시라면 그 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그 후에 오면 좀 그럴 것 같음. 쇼호스트 말대로 새벽배송이 안되면 저녁 방송에서 저런 멘트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럼 '월요일 저녁에 뭐 입지?' 라고 멘트를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서인주

소비자들이 빨리 받으려는 경향이 많음. 대부분의 경우, 그냥 주문하면 2~3일 배송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문할텐데 왜 이렇게 빨리 배송을 원하

는지 모르겠음. 그렇지만 여행에 필요한 물품은 좀 빨리 오면 좋겠음.

마경태

다음날 아침까지는 받아야 하는 물품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음.

서인주

경쟁적으로 빨리 배송을 해준다 하니 나도 모르게 당연히 빨리 와야 한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음.

신영수

개인적으로 지방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얼마전 대구도 새벽배송을 시작하였음. 이걸 겪어 보니 '너무 편해서 지방으로 가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나옴. 대구도 대도시인데 왜 안 되는지 생각하게 됨. 지방유통망 부족에도 불구하고 비용 발생 측면이 있지만 매출액 신장이나 이런 게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음. 만일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지방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해주면 이해를 할 것 같음. 수도권 위주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좀 오해할 수 있을 거 같음.

서인주

다른 얘기인데 전원주택을 알아보는 기준이 새벽 배송이 가능한지에 따라 그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 같음. 왜냐하면 지방 특성상 장보기 힘들고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부분이 집값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음. 배송이 생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느낌임.

한명삼

전원주택은 특히 새벽배송이 중요한 것 같음.

김미경

휴일 배송에 대해 비용 추가가 있는지?

오주연

비용은 서비스기에 소비자에게는 없음.

마경태

배송지역은 '휴일에도 내일도착' 배송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함. 따라서 이 정보를 누락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기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됨.
모바일 주문 화면에 배송지역 제한에 대한 문구가 누락되어 있는데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서울, 수도권(일부지역)' 표현만으로는 배송지역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배송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등을 추가로 설명하는 절차와 화면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서현선

내일배송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공지는 눈에 띄고, 쇼호스트의 설명에도 잘 드러나지만, 이 서비스가 한정적인 지역에만 시행된다는 설명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오인의 여지가 있어 보임.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이를 미인지하고 있다가 내일배송이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불만스럽고 기만당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음.

이와 관련해서 "내일배송" 서비스가 시범 시행 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됨.

서울/수도권 한정이라는 표현은 그 외 지역을 배제하는 어감이지만, 서울/수도권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는 표현은 타지역을 배제하는 느낌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음.

최정혜

수도권(일부 지역), 가까운 근교 등의 표현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을 지도로 표시하여 방송 화면에 보여주거나, 모바일 앱에 배송지 주소를 입력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심재웅

해당 상품 쇼호스트는 "수도권, 그리고 가까운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내일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다", "내일이 일요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음. 말하는 속도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속도라고 생각함. "휴일에도 내일도착" 이미지에는 다소 작기는 하지만 "서울, 수도권(일부지역) 한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도권 일

	<p>부 지역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해서 그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오인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함. 그러나 배송서비스가 보편화된 요즘, 수도권 일부라고 했을 때 고객들은 일단 내가 사는 곳이 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곳인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판단됨.</p> <p>새로운 배송 서비스인 '휴일에도 내일 도착'은 오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함. 다만, 자신의 거주 지역이 내일도 착이 가능한 수도권 일부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주문전에 확인할 수 있는 URL이나 QR 코드 등을 제공하면 오인의 가능성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p> <p>말씀하신 글자 자막, 멘트 등 유관 부서랑 상의 후에 다음 시청자 회의 때 진행 상황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p>		
총 건수	11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24.1 ~ 2024.12)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윤경희	751216	現 중앙일보 이노베이션랩 부장	-	1년
김호중	670707	現 시민 움부즈맨 대표	-	1년
서아론	840430	現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	1년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GS리테일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운영실적	인터넷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3. 09~ '25.09.)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서인주	•現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前 한국소비자업무협회 회장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보호단체	
부위원장	김미경	•現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現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심의위원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보호단체	
위원	심재웅	•現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前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	
위원	정사강	•現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前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한국언론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	
위원	이현규	•現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마경태	•現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최정혜	•現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現 한국유통학회 이사	한국유통학회	유통단체	
위원	신영수	•現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 •現 한국유통법학회 이사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단체	
위원	한명삼	•現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본부장 •現 사단법인 로템복지회 감사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사회소외계층	
위원	서현선	•現 한양대 사회혁신융합전공 겸임교수 •現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부모단체	
변 동 사 항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방 심 위 조치사항	<p>1. 방심위 이슈 사항 : 제품 성분의 광고 표현 관련</p> <p>심재웅 이번 사건은 발사믹 식초 관련한 안전임. 해당 발사믹은 순수 원액만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있는 편임. 당사에서는 '순수 100% 포도 원액만 발효해서 만들었다.'고 표현 했는데 타사에서는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란 표현 사용함. 순수 원액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무수아황산이라는 일반 색소와 화합물을 변형시키고 갈변 등을 막아주는 식품 첨가물이 자연적으로 생성됨. 제조사 공문으로도 이를 확인함. 일부러 첨가 하지 않고, 자연 발생한다 하더라도 식품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음. 유럽에서는 알리지 발생 가능성 때문에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방송 화면에도 무수아황산이 첨가됐다는 성분표가 송출됨. 포도 원액만 발효했다 했으니 당연히 첨가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고객도 있을 것 같아 안전상정해서 의견 들어보고자 함.</p> <p>서인주 무수아황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오인할 가능성도 있음. 알리지 문제와 같은 것은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알고 피할 권리가 있기에 첨가가 없다는 표현은 불가함.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정도의 표현은 어떠한가?</p> <p>신영수 무수아황산을 인의적으로 첨가한 경우랑 자연적으로 생성된 경우 둘 다 소비자에게 별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음. 다만, 일부러 말하지 않는 거라면 문제 삼을 수 있기에 쇼호스트가 구두로라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게 좋아 보임.</p> <p>이현규 방송 내용을 봤을 때는 특별히 다른 첨가 없이 포도 원액만으로 만들었다</p>	<p>이탈리아 발사믹 콘디멘트(발사믹 발효 식초)를 판매하면서, 해당 발사믹은 순수 100% 포도 원액만으로 발효하여 만들었지만, 식품 첨가물인 무수아황산이 발효 과정에서 자연 발생한다 함. (제조사 공문으로 확인함) ※ 무수아황산 : 식품 가공 과정에서 일반색소와 발색성 물질을 무색의 화합물로 변화시키고, 갈변, 착색 등의 변화를 억제 일부러 첨가 하지 않고 자연 발생했다고는 하나, 식품 첨가물로도 등록 및 사용되고 있는 무수아황산에 대해 해당 상품엔 첨가물과 보존료가 없다고 광고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시청자 입장에서의 우려되는 점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안전으로 제시함 해당 안전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적극 수용하여 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음</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는 멘트가 문제는 없어 보임. 현재 안건은 향후 멘트를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짐. 그런데 쇼호스트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음. 화면상에 원재료 표시가 나오는데 인의적인 첨가물이 없고 발효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등의 멘트를 굳이 넣어야 하는가? '아무 첨가물이 없다.' 이런 멘트가 실제 방송에서 나왔다면 문제 될 것 같은데 해당 예시 방송에서는 없어서 별 문제는 없어 보임.</p> <p>오주연 방송 상에서 문제는 없지만 우려사항으로 표현이 신경 쓰임. 해당 상품이 가격이 조금 나가다보니 협력사에서 100% 포도 원액 강조를 원함. 인의적인 첨가물을 넣은 저가형 발사믹과 차별점을 부각하고, 고가 제품으로써 소비자에게 이탈리아에서 만든다는 부가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음.</p> <p>최정혜 사실, 발사믹 식초 차이점으로는 고가 제품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저가 제품은 일부러 첨가하는 것임. 동일한 양상을 띠는 게 와인임. 저가 편의점 와인은 뭔가 집어넣었으나, 고가 와인은 아무것도 없는데 보존제가 자연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와인 업계에서는 그런 걸 강조하지 않는 거 같음. 따로 언급을 하는 건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언급하는 포인트가 정보 전달 목적보다는 고급스러움 이런 데에 강점을 두는 것이 좋아 보임. '해당 성분은 자연 발생한 것이고, 이는 와인에서도 생기는 거다.' 이런 문구를 다른 곳에서 봤었음. 가슴에 와 닿고 신뢰도 있어 보임. 확실히 비싸서 그렇다고 납득하게 됨. 어차피 정보 공개를 해야 하는 것에 고민 중이라면 고급화 전략을 셀링 포인트로 삼는 건 어떤지 의견 들려봄.</p> <p>심재웅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의견 비슷함. 일부러 첨가물이나 보존제를 넣지 않음. 포도 원액 100%를 가지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부분임. 자연적으로 생기는 부분이라는 걸 강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더 믿을만한 제품이라는 느</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낌을 받을 것 같음. 다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음. 무수아황산이 정말 큰 문제는 없지만, 민감한 사람도 있다 하니 정보 차원에서 자연 발생이긴 하지만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멘트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함.</p> <p>김미경 앞선 예시 동영상에 쇼호스트가 설명 을 잘 해줘서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없 다 생각함.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표현이 큰 오크통에서 작은 오크통 으로 옮겨지고, 원액을 끓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존제가 자연적으로 발생했 다 정도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 임. 그러나 인의적으로 넣지 않았다는 표현은 소비자 입장에서 오인이 될 것 같음. 어떤 공정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하면 일반 제품과 다르게 자연 발생한 것이라고 납득할 것 같음.</p> <p>신영수 저가 제품의 제조 공정이랑 비교하면 간단할 거 같음. 그건 안 됨?</p> <p>오주연 아무래도 타사 제품과 비교하면 비하 한다는 시각으로 비취질 수 있음. 자연 발생이든 인의적이든 무수아황산은 동 일한 성분이기에 그러한 걱정도 있음.</p> <p>김미경 타사와 비교하면 광고법, 방송 심의에 서 걸리는 부분임. 쇼호스트가 설명한 것처럼 '어떠한 과정에서 완성이 됐다.' 이런 설명 까지는 괜찮은 것 같음.</p> <p>한명삼 큰 문제의식은 느끼지 못했음. 인의적 으로 첨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더 불어 제품에 무수아황산이 포함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어필을 해야 할까? 부정적인 이미지임. 또 알려지 문제가 있어 보임. 알려지 소재가 첨가 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성분 표시에 의무 공지 사항이 있나? 그게 없다면 굳이 성분 표시하여 알려지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어필할 필요 없어 보임.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컴플레인 고객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 발생했다</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고 한다면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어필한다는 부분에서 조심스러움.</p> <p>서인주 국내는 알리지 문제가 크지 않아서 '굳이 해야 하는가?' 이런 느낌임. 그러나 유럽에서는 주의해서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있음. 국내에서도 이렇게 규제하나?</p> <p>오주연 알리지 성분은 제품에 표시하게 되어 있음. 온라인 판매다 보니 고객이 직접적으로 상품을 볼 수 있는 건 방송에서만임. 일부 고객들에 대해 알리지 성분 언급이 정확하게 없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아무래도 유럽 보다는 알리지 발현 관련해서는 주의 표시 규제 등은 낮은 것 같음.</p> <p>정사강 사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찾아봄. 무수아황산은 나쁜 게 아님.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자연 발생하여 음식물 등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들임. 현대에는 논란이 있긴 했으나, 말린 과일이나 이런 데는 많이 첨가 중임. 그 중 의학계에서 얘기가 있었음. 포도주나 이런 발사믹 식초 같은 곳에 무수아황산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많음. 앞서 다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인의적으로 첨가했다는 건 제품에 대한 신뢰와 직결될 가능성이 있음. 장류도 그러함. 술이나 장이나 발효 과정에서 특정 첨가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기는 힘들어 보임. 예전에는 발효나 이런 것 자체는 좋은 걸로 인식함. 인공적으로 첨가하는 초가공 식품들에 거부감이 있는 것임. 인공적이 아님을 부각하는 선이라면 괜찮을 것 같음. 크게 한국에서 문제가 됐다는 사례는 없음. 다만, 천식에는 크리티컬함. 와인을 아이들에게 권하지는 않겠으나, 가족이 천식이 있는 아이에게 발사믹 식초 등을 주었을 때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음. 최종적으로 인의적이 아니란 것은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거구나.' 라고 인식 할 것 같음.</p> <p>서현선 앞선 의견과 비슷함. 일단 자연 재료로 만든 점을 더 강조하는 게 좋을 것</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같음. 인공적인 첨가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산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재료를 큰 오크통에서 작은 오크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와 같이 쇼호스트가 자세히 설명해준 것이 맘에 들었음. 이리러한 과정에서 생겨났음을 강조하면 좋겠음. '무수아황산이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빼고는 우린 어떤 것도 넣지 않는다.' 이런 느낌... 인의적인 성분을 넣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 재료, 자연 발생 첨가물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다.' 이런 표현은 관찰아 보임.</p> <p>마경태 앞서 말씀하신 것들에 다 공감함. 발효 과정에서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와인, 장 같은 음식에 대해 발효 과정에서 뭐가 나오는지 다 설명하지 않음.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자연 성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으나, '꼭 해야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거 같음.</p> <p>신영수 이번 안건을 굳이 법적으로 연결짓자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로 보임. 결론적으로는 현행법(표시광고법)의 위반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논란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선제적,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있음. 그간의 기만적 광고 사례들을 보면 주로 중요한 사실의 누락,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현상 기만적 광고로 판단된 경우들이었음. 특히 기만적 광고의 성립요건에서 주관적인 고의나 의도, 목적을 따지지 않음. 예컨대 흡소핑사나 매체가 불리한 사실을 인위적으로 누락하거나 내용을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별도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자율적인 시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문제를 삼아 오고 있음. 무수아황산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경우와, 미를 첨가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수아황산이 나오</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는 경우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는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질 수 있고, 무수아황산이 나올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드러내지 않은 점을 문제삼으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음.</p> <p>판매상품의 상품성을 크게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무수아황산나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쇼호스트가 구두로라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p> <p>서인주 "첨가물 및 보존료가 없다"는 표현은 소비자가 무수아황산 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어보임. 특히 무수아황산물질이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됨. 소비자에 따라서는 건강이나 알리지 문제로 무수아황산에 민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품의 성분을 제대로 알고 피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첨가물로 등록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에 "첨가물 없음" 대신 "자연발효로 발생한 성분(무수아황산) 포함"이라고 표기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임.</p>				